

의자 디자인에 관한 고찰

-빅토리아시대로부터 현재까지-

A Study on the chair design

-from the Victorian era to the present-

정 의 철 (Jung Euy-Chul)

경남대학교 인터디자인학부

이 논문은 2000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씌어진 것임

1. 서론

이론을 표현할 기회를 가졌던 디자이너들의 리스트는 끝이 없어 보인다.

2. 의자의 어원 및 분류

매킨토쉬(1868-1928), 라이트(1867-1959), 알토(1898-1976)와 같은 건축가들은 인테리어와 건축을 위한 예술적 계획속에 의자 디자인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의자의 제조업자들이 장인의 영역에서 인터스트리얼 프로세스의 영역으로 이동됨에 따라, 디자이너들은 공학적 지식을 배경으로 현대적 제조 기술의 제한요소내에서 혁신적인 의자 디자인들을 개발하였다. 또한, 기능과 구조의 문제를 넘어서 의자의 기본적인 가치는 과거의 현재된 의자의 특성, 아이디어와 가치에 대한 전달에 있으며 의자에 대한 설득력은 그 수사학상의 명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3. 시대별 특징

3-1 빅토리아시대

3-2 1901-1920년

3-3 1921-1930년

3-4 1931-1940년

3-5 1941-1960년

3-6 1961-1980년

3-7 1981-2000년

의자는 디자이너들이 시각적으로 말하고 개인적 신념을 선언할 수 있는 이상적인 매체가 되어왔다. 미래에도 의자디자인은 비현실적 디자인과 실용적인 디자인 사이에서 계속 고민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디자이너들이 추구하는 유일한 길이라 하겠다.

4. 결론

(abstracts)

A thousands of chairs have designed from the Victorian era to the present. Thonet's No14 chair in 1859, Wright's high-back chair in 1904, Rittveld's red/blue chair in 1917, Breuer's Wassily chair in 1925, Aalto's Paimio chair in 1932, Eames's DAR chair in 1948, Piero Gatti's Sacco chair in 1969, Starck's Von Volgelsang chair in 1984, Stumpf's Aeron chair in 1992, Little's 'Coat of arms' chair in 1994 - the list of architects who have seized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theories in the design of a chair is seemingly endless.

참고문헌

Architects such as Machintosh(1868-1928), Wright(1867-1959), Aalto(1898-1976) included chairs within their artistic schemes for interiors and buildings. But as the manufacture of chairs moved away from the domain of the craftsman towards that of the industrial process, architects were also ideally positioned, with their background knowledge of engineering, to pioneer innovative chair design within the constraints of modern manufacturing technology. Beyond matters of function and structure, the fundamental worth of chairs, past or present, lies in their communication of attitudes, ideas and values. The persuasiveness of a chair depend on the clarity of its rhetoric.

(要約)

빅토리아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의자들이 디자인되었다. 토네프의 1859년 No.14의자, 라이트의 1904년 등이 높은 의자, 리트벨트의 1917년 적/청의자, 브로이어의 1925년 와실리 의자, 알토의 1932년 파이미오 의자, 이임즈의 1948년 DAR 의자, 피에로 가티의 1969년 사코 의자, 필립 스타크의 1984년 폰 포겔상 의자, 스텐프의 1992년 에어론 의자, 리틀의 1994년 코트 오브 암(Coat of Arms)의자 등 - 의자디자인에서 자신의

Chair has become an ideal medium for designers to make their visual statements and construct their individual manifestos. In chair design there is a ping-pong game played out between absurd and useful design, and this game is one way in which the design profession explores itself.

(Key word)

chair design, indivisual manifestos, diversity, connections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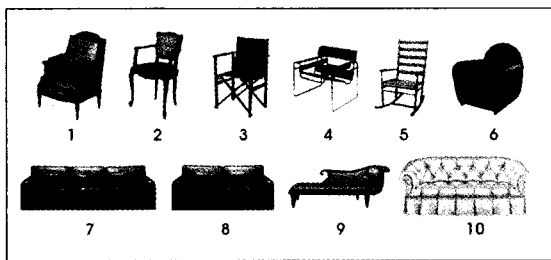
1836년 미하엘 토네프의 보파드(Boppard)의자로부터 1997년 로스 러브글로브의 매직(Magic)의자에 이르기까지 의자의 디자인이 매우 다양하며 수없이 많다. 본 연구는 빅토리아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의자의 디자인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로서, 의자디자인의 시대적 경향 및 흐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의자디자인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디자인 및 가구관련 서적들로부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110여가지의 의자를 선별하고, 이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디자인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결국 이것은 산업혁명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에 이르는 기간동안 주요한 의자들의 생산과 관련되는 재료 및 제조생산 방법의 변천, 양식의 변천, 디자이너와 디자인된 의자들의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서, 시대별 의자 디자인에 대한 특징을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2. 의자의 어원 및 분류

우리가 의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chair'를 말하는 것으로 등받이, 앉는 자리와 대개 4개의 다리가 있으며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가구를 말한다. 이 용어는 라틴어의 'cathedra'가 어원으로 kata, down + hedra, a seat의 뜻을 갖는 합성어이다.¹⁾ 성당에서 카시드러는 사교(司敎)가 앉는 의자를 가리키며 이탈리아어로는 강좌도 사교의자도 교황의자도 모두가 'cattedra'이다. 또한 대학의 강좌를 'chair'라고 하며 거기에 앉는 교수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한다.

의자는 예로부터 건축가나 디자이너가 다루어 온 가구의 대표적인 존재였다. 거기에는 디자인상의 '도구의 측면'과 '정신표상의 측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의자에 앉는 행위 자체가 인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인 것이다. 즉, 하나는 정신성을 상징화하는 역할이며, 다른 하나는 인체 지지의 도구로서의 역할이다. 이 두가지 측면이 가장 적당한 균형을 이루도록 디자인된 것이 이상적인 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 의자는 암체어(Armchair;안락의자), 시트(Seats;의자), 사이드체어(Side Chair;팔걸이없는 의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의 유형들은 아래와 같다.³⁾

1) 암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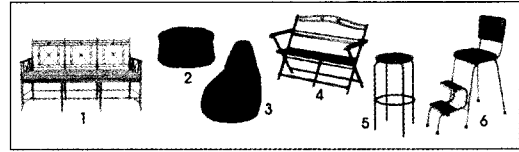


①bergere⁴⁾(베르제르) ②cabriole⁵⁾(캐브리올) ③director's chair

1)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2) Daizaburo Okita 지음, 박대순 옮김, 산업디자인·프로덕트 디자인 연구, 도서출판국제, 77, 1995
 3) Jean-Claude & Ariane Archambault, The Macmillan Visual Dictionary, Macmillan, 220-223, 1995
 4) 의자 전체가 천으로 둘러싸인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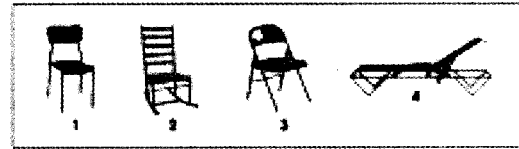
(앉는자리와 등받이에 캔버스를 댄 접의자) ④wassily chair(철봉을 이용한 의자) ⑤rocking chair(흔들의자) ⑥club chair(키가 낮고 폭신한 안락의자) ⑦sofa(소파, 긴의자) ⑧ love seat(2인용의자, 러브시트) ⑨recamier(소파의 일종) ⑩chesterfield(소파의 일종)

2) 시트



①banquette(벽에 붙여 만든 불박이 긴 의자) ②ottoman(ottoman, 쿠션달린 발판이 있는 의자) ③beanbag chair(오자미 의자) ④bench(벤치, 긴의자) ⑤stool(스툴, 등근 의자) ⑥high chair(긴다리로 된 어린이용 의자)

3) 사이드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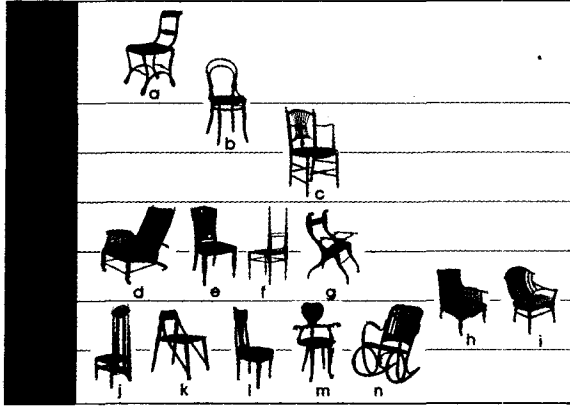
①stacking chair(스태킹체어, 겹쳐 쌓게된 간편한 의자) ②rocking chair(흔들의자) ③folding chair(접을 수 있는 접의자) ④chaise longue(긴의자의 일종)로의 분류가 가능하며 이것은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대표적인 유형들을 간추린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회전의자(swivel chair) 등이 있다.

3. 시대별 특징

18세기 후반, 자연으로의 회귀를 주장한 루소의 사상과 도덕적인 개선의 영향아래 경솔하고 부패한 로코코 양식에 대한 반동으로 신고전주의가 일어나고 가구의 조형개념은 귀족 중심에서 서민 중심으로 점차 바뀌어 가면서 가구제작, 특히 의자의 제작에 있어서 제작자의 개성적인 표현이 중요하게 되는 시대를 맞게 된다. 따라서 가구에 있어서 종교의 영향은 웨이커 교도의 가구를 마지막으로 거의 사라지게 되며, 이후의 시대는 근대 회화의 개념이나 가구 자체의 형과 기능에 관한 디자인 사상이 가구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⁶⁾ 본 연구는 19세기 초반의 공예적 대상물의 영역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의 디자인된 제품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구분하여 그 각각의 경향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1900년이전의 빅토리아 시대, 1901년-1920년, 1921년-1930년, 1931년-1940년, 1941년-1960년, 1961년-1980년, 1981-2000년까지로 구분하여 시대별로 의자들의 디자인 경향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5) 밑부분이 등근 클럽 풋(club foot)이나 동양에서 유래된 것으로 진주를 잡고있는 웅 발톱모양의 클로우 앤 볼 풋(claw and ball foot)으로 끝저리가 되어있는 의자.
 6) 정복상, 김상권 지음, 가구디자인, 미진사, 24, 1993

3-1. 빅토리아시대



①미하엘 토네트 Michael Thonet, 오스트리아/1836-1840. 1836년부터 토네트는 판재(laminated wood)를 구부러서 의자로 제조하는 실험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단판(單板)을 꿰는 아교에 담가서 원하는 형태의 모우드에서 프레스하는 것과 관계된다. ②미하엘 토네트/1859. 1850년대 후반들어 광범위한 실험의 결과로 제작된 이 No.14의자는 고금을 통하여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된 제품의 하나로 기록된다. 간결한 형태는 대량생산을 성취할 목적으로 토네트에 의해 개발되었다. 1930년까지 5000만개가 전세계에서 팔렸다. ③가브리엘 로제티 Gabriel Rossetti, 영국/1864-65. 섭정시대풍의 디자인(Regacy design)에 대한 재해석으로, 이 의자는 19세기 후반기에 인기있었던 유명한 아티스트 겸 디자이너들에 의한 심플한 디자인이었던 아트가구(Art Furniture)의 좋은 예이다. ④필립 웹 Philip Web, 영국/1865. 1860-70년대에 모리스 상회에서 생산한 대부분의 가구들은 웹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미술공예 디자이너들의 세대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 암채어는 전통적인 형태에 대한 해석으로 모리스의 미술공예운동의 이상이 가장 잘 나타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⑤아서 맥머도 Arthur Mackmurdo, 영국/1882-1883. 맥머도는 공예의 올바른 위치를 회복하고 부흥하는 공예운동을 1888년까지 계속하였다. 이 의자의 구멍뚫린 등받이에 적용된 소용돌이치는 유기적 모티브는 비대칭이며 생동적이어서 아르 누보라고 부르게 되었다. 정적이고 대칭적인 양식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⑥에드워드 윌리엄 가드윈 Edward William Godwin, 영국/1885. 가드윈의 디자인들중에서 가장 추상적인 이 형태는 이집트의 가구를 참고로 하였다. 간결하고 우아한 선으로 팔목할만한 현대 감각을 부여하고 있다. ⑦앤슬리 보이 지 Annesley Voysey, 영국/1883-1885. 앉기 위한 보이지의 가장 초기 디자인으로 믿어지는 이 인체공학적인 '스완'의자는 매우 구조적이다. 매력적인 외형은 인간의 형상을 모방하였다. ⑧조지 잭 George Jack, 영국/1890. 잭은 1890년에 웹의 뒤를 이어 모리스 상회의 가구디자인의장이 되었다. 그의 디자인은 보다 덜 역사적이었으며 18세기 디자인을 단순화하고자 하였다. ⑨앙리 반 데 벨데 Henry van de Velde, 벨기에/1895. 벨데는 벨기에에서 독일로 이주하였고 거기에서 아르누보에 대한 영국식 변형을 실행하였다. 다작의 디자이너로서 또한 주요

한 디자인 이론가로서 그의 의자들은 스타일상의 관례를 넘어 존재할 수 있는 기능적인 오브제에 대한 그의 소망을 실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⑩찰스 레니 매킨토쉬 Charles Rennie Mackintosh, 영국/ 1897. 매킨토쉬는 켈트(Celtic)와 일본의 혼합된 영향으로부터 형태에 대한 대단히 개인적이고 상징적인 표현형식을 고안하였다. 이 디자인은 강렬한 문화적 전통에 기인되며 놀라운 현대성을 성취한 것으로 기록된다. 즉, 특정 공간의 구성요소로서 디자인되어, 앉는 기분보다도 등받이의 곡선이 독특하여 시각상의 강조가 두드러진다. ⑪리처드 리머시미드 Richard Riemerschmid, 독일/1899년. 드레스덴 미술전람회에서 처음 선보인 이 의자는 다른 많은 아르누보 가구와는 대조적으로 장식적 요소가 없고 기능적이다. 살짝 구부러진 대각선의 받침목은 의자에 안정감을 주며, 또한 팔걸이가 없는 형태는 음악가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다. ⑫헥토르 기마르 Hector Guimard, 프랑스/1900. 기마르의 아르누보 디자인에 대한 인기는 용어 '기마르 스타일(Guimard style)'이 만들어진 바로 그것이었다. 파리 지하철역 입구를 전형적인 아르누보 양식으로 디자인하였다. ⑬안토니오 가우디 Antonio Gaudi, 스페인/1898-1900. 특정한 장소를 위해 설계된 이 의자는 장식적 목적으로 디자인되었다. 아르누보에 대한 가우디의 해석은 프랑스와 벨기에 동료들 보다 더 확고하였으며 스타일상으로도 추상적이었다. ⑭미하엘 토네트/1900년. 곡목을 이용한 흔들의자이다.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1837년부터 1901년까지가 빅토리아 시대로서,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기계 및 공장생산 방법의 채택 등 20세기 가구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이끌었던 아이디어의 창조 등이 이 시기에 일어났다. 기계생산공정을 사용하여 의자를 대량생산하는 방법이 오스트리아에서 미하엘 토네트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토네트는 1819년에 가구공방을 설립하여, 1830년경 토네트는 나무가구의 구성품을 곡선으로 구부리는 방법을 실험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단단한 너도밤나무를 스티프로 동그렇게 S자형으로 구부릴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대량생산방법으로 제작한 걸상은 1841년의 코브렌츠, 1842년의 마인츠 전시회에서 출품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1851년에는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 산업대박람회에 의자 세트가 출품되기도 하였다. 토네트의 곡목의자는 주요한 기술적 돌파구가 되었으며, 1840년대 비엔나에서 풍미했던 로코코 양식을 부활시켰다. 이리하여 토네트의 의자디자인은 고전적 모더니즘 디자인의 원형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모델 NO.14 의자(1859년)에 사용되는 8개의 작은 나사들은 의자를 구성하는 5개의 굵은 나무부품을 쉽게 결합시켜 주는 것으로(그림1), 고금을 통하여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디자인된 제품으로 현대적 대량생산 가구의 원형이 되었다. 9)



그림1. No.14의 표준부품들

이 시기의 특징은 토네트에 의한 곡목가구와 모리스, 웹, 가드윈, 보이지를 통하여 정확한 재료의 사용과 가구제작의 기초 원리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바탕위에서 단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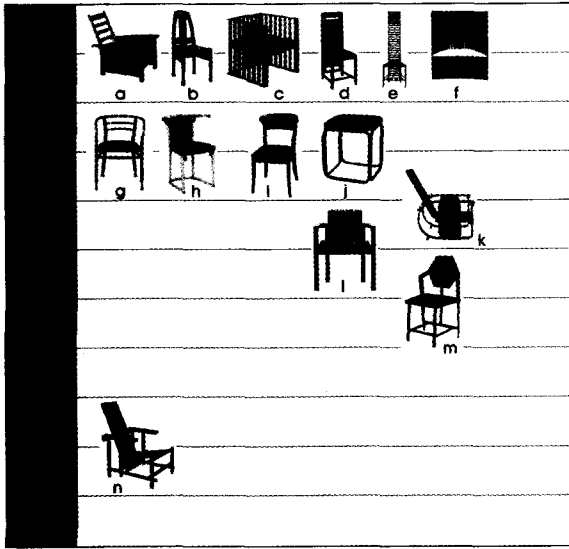
7) Charlotte & Peter Fiell, 1000 chairs, Taschen, 44, 1997.

8) 산업디자인 150년, 정시화, 미진사, 84, 1991.

9) Thomas Hauffe, Design, Barron's, 36-37, 1996.

고 건전한 의자의 형태가 나오게 되었다. 미술/공예운동과 아르누보의 영향으로 장식적이며 곡선적인 스타일이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리머시미드의 음악실용 의자와 같은 것은 기능이 형을 지배하는 기능주의 양식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1901-192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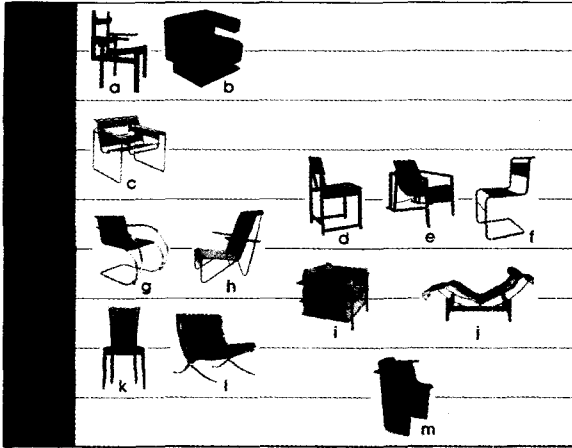
① 구스타브 스티클리 Gustav Stickley, 미국/1901. 미국에서의 미술공예운동의 지도자였으며 미션양식의 가구를 디자인하였다. 그는 영국과 대륙에서 영감을 받았고, 일찍이 1886년 뉴욕에서 가구점을 열었다. 식물형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실험해본 후에 식물의 형태는 장식에 사용될 때는 아름답고 적합한 반면, 가구형태에는 부적합함을 알고는 그 아이디어를 포기했으며 장식이 아닌 가구 자체가 유일한 관심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스티클리는 미국가구에 독특한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주고자 시도하였으며 대량생산된 현대가구 운동의 지도자였다. 그의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꾸밈없는 표면은 선구자적 미학을 상기시키며 동시에 현대적 기능주의의 순수함을 예고하고 있다. ② 페터 베렌스 Peter Behrens, 독일/1902. 베를린의 한 백화점에 전시하기 위해 꾸민 식당을 위한 가구로서, 이 의자의 엄격한 디자인은 아르누보의 표현방식에 순식간에 빠져드는 것을 주저하던 독일 디자이너들의 일반적 성향이었으며, 베렌스의 후반기 작품의 전형이 되었다. ③ 콜로만 모저 앤 요제프 호프만 Koloman Moser & Josef Hoffmann, 오스트리아/1902. 요양소의 현관 홀에서 사용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으로 정육면체 형태와 제한된 색채의 사용은 분리와 스타일을 상징하며 현대적 운동에 대한 기하학적 추상을 예견하고 있다. ④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Frank Lloyd Wright, 미국/1904. 라이트는 등받이가 높은 이런 유형의 여러 가지 변형된 의자들을 디자인하였다. 평판 혹은 가늘고 긴 등받이를 사용한 이러한 그룹은 분명히 선교용 가구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라이트의 의자들은 강렬한 수직적이고 기하학적인 강조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자들은 나중에 리트벨트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다. ⑤ 찰스 레니 매킨토쉬/1903. 글래스고의 출판업자 W.W.브라키를 위해서 설계한 헤렌즈바라 힐하우스의 침실용 의자. 오리지널은 지금 여전히 힐하우스의 침실에 놓여져 이 방의 하양

게 색칠된 내부장식이나 가구와 선명하게 대조되어 격자로 된 빛의 공간을 형성한다. ⑥ 찰스 레니 매킨토쉬/1904. 월로우 컵집을 위해 디자인한 의자이다. 격자무늬의 등받이를 가진 의자들은 칸막이의 기능을 갖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수직 세로줄과 격자 문양은 매킨토쉬 디자인을 대표하는 또하나의 특성이다. ⑦ 오토 바그너 Otto Wagner, 오스트리아 /1905-6. 오스트리아 우체국의 위원회실을 위한 의자디자인으로 현대성이 뛰어나다. 알루미늄 부속품은 장식적일 뿐만 아니라 의자에서 가장 상하기 쉬운 부위를 보호해준다. 이 당시의 비엔나는 자체의 양식을 만들어 구조적인 탐색과 재료와의 일치를 추구하여 직접적으로 모던 운동의 이상향을 이끌었다. ⑧ 요제프 호프만/1905. 만남의 장소 플레테르마우스 카바레트의 실내장식을 위한 디자인으로 연결부분이 공모양으로 되었으며 비례, 경쾌한 분위기, 상쾌한 유동적인 선, 우아한 가벼운 설비, 새로운 형태의 안락한 의자로 말끔하게 정돈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⑨ 리처드 리머시미드/1906. 영국의 아트 앤 크래프트 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리머시미드의 단순하고 장식없는 디자인들은 전통적인 형태들과 기능적인 도시의 간결함을 종합한 결과였다. 기계로 제작된 의자이다. ⑩ 오토 바그너/1906. 오스트리아 은행의 메인 룸을 위한 스툴 디자인. ⑪ 요제프 호프만/1907. 이 의자는 엄격한 기하학적 형태로 인하여 나중에 리트벨트 디자인을 예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⑫ 발터 그로피우스 Walter Gropius, 독일/1911. 1908년부터 1910년까지 그로피우스는 피터 베렌스의 건축사무실에서 일하였다. 1910년 그는 자신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독일공작연맹의 회원이 되었다. 같은 해로 기록되는 이 의자는 본래 그의 파우스 공장용으로 디자인하였으며, 표준화와 창조적 표현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공작연맹의 논쟁을 요약한다. 이 가구의 구성은 표준화된 생산에 적합하지만, 의자의 미학은 단연 개성적이다. 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1914. 시카고의 미드웨이 가든 설계를 구상하다가 얻은 작품으로, 원래는 여름밤의 옥외용 의자이다. 이 육각형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은 후에 도쿄의 임페리얼 호텔의 피코크 의자에도 활용하였다. ⑭ 게리트 리트벨트 Gerrit Rietveld, 네델란드/1917. 자연스러운 목재표면으로 마감하여 1917-18년경에 원래 디자인되었지만, 리트벨트는 드 스타일 운동에 참여한 결과 1921년에 페인트로 칠하였다. 그 간결한 구조물과 함께, 이 디자인은 규격화되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레드 & 블루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3원색이며, 그 스스로 "아름다운 공간적 디자인이, 직선적인 재료와 기계로 창출시킨 것의 증명"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기하학적 메카니즘의 산물인 이 의자는 수직성과 수평성의 교차에 의한 구성으로 다이내믹한 감을 준다. 특히 이 의자는 적, 청, 황의 3원색을 이용하여 감정입을 배제한 기본적인 구조로 이름 높지만, 앉는 기분의 설계는 두 번째 문제인 것이다. 가구의 영역을 넘어 미학적 가능성의 전기를 형성한, 조형논리 모델로서의 관념적인 면이 강하다.

이 시기의 의자디자인의 특징은 수공예적 미술공예운동과 곡선적 아르누보로부터, 단순하며 장식이 배제된 기하학적 형태로의 변화를 볼 수 있다. 1900년대초의 베렌스의 작품은 그 이전시대의 곡선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직선적인 요소를 주된 조형언어로 활용하였으나 완전히 장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스티클리와 라이트의 의자디자인을 보면 아르누보 운동이 미국의 가구 디자이너들에게는 전혀 수용이 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1910년대부터 디자인의 기본적인 조형언어는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요소로서 구성된 것이었다. 직선적 아르누보 스타일, 분리와, 드 스타일로 이어지는 매우 기하학적이고 직선적인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리트벨트의 의자는 안락하지는 않았으나 그룹의 사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었으며, 종래의 것이 아닌 새로운 재료와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공하였다. 직/청의의자는 기하학적 조형논리에 대한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3.3. 1921-19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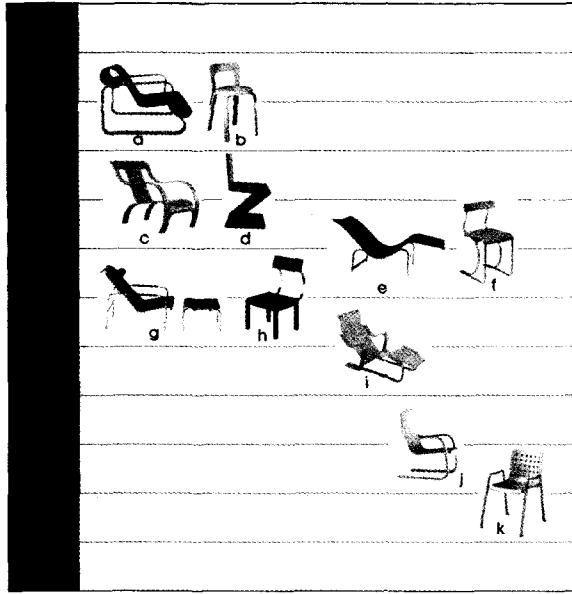
㉠마르셀 브로이어 Marcel Breuer, 헝가리-독일/1923. 이 의자는 1921년 바우하우스에서 가구를 전시하였던 리트벨트의 영향을 증명한다. 브로이어는 드 스타일의 찬미자였으며 1921년과 1929년 사이에 리트벨트의 스타일로 많은 의자를 창조하였다. ㉡발터 그로피우스/1923. 바이마르 바우하우스의 교장실을 위한 팔걸이 있는 의자. 이 캔틸레버 구조의 그 독특한 형태는 상황 구조 방법들에 대한 그로피우스의 연구결과이다. ㉢마르셀 브로이어/1925. 역사적으로 매우 눈에 띄는 의자이다. 헝가리에서 태어났으며 바우하우스에서 마스터 학위를 받고 1925-28년까지 가구분야를 지도하는 교사가 되었다. 뎃사우 바우하우스에 있는 와실리 칸딘스키의 숙소를 위해 디자인된 것으로 바우하우스가 성취한 대표적인 디자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 의자는 오늘날까지도 시판되고 있다. ㉣에릭 데크먼 Erich Dieckmann, 독일/1926. 바이마르 바우하우스에서 훈련받는 동안에 데크먼은 등나무와 뿔나무를 이용하여 공예와 기능주의를 통합한 의자를 디자인하였다. ㉤아이린 그레이 Eileen Gray, 아일랜드/1926. 아르데코의 대표 디자이너로서 그녀의 디자인은 역사주의를 거부하였고 강렬한 현대적 센스를 전달하였다. 후기에는 기능을 강조한 건축과 가구를 디자인하였으며, 기계시대에 대한 도전은 새로운 사고방법을 필요로 한다는 그녀의 신념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보여질 수 있다. ㉥마트 스타 Mart Stam, 네델란드/1926. 스타의 동료들과 역사가인 지그프리트 기디온은, 스타를 1926년 최초로 파이프 철제 의자를 디자인한 디자이너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타는 이 의자를 1927년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그의 자택에 놓고 사용하였다. 원래 이 의자는 마르셀 브로이어의 작품으로 그 이름도 B33으로 알려졌으나, 후에 이것이 스타가 만든 S33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미스 반 데어 로에 Mies van der Rohe, 독일/1927. 1920년대 후반에 들어 독일의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은 현대적 강철봉 의자의 이상적인 형태를 찾아내는 문제에 몰두해 있었다. 이 의자는 브로이어나 스타와 동일한 원칙을 사용하였다. ㉧게리트 리트벨트/1927. 합판 좌석부분이 강철봉 프레임위에 나사못으로 고정되었다. 이 의자와 몇가지 변형된 의자들은 실제로 대량생산된 리트벨트의 첫 번째 디자인이었다. ㉨르 꼬르뷔지에, 피에르 잔느레, 샤를로트 페리앙, Le Corbusier, Pierre Jeanneret & Charlotte Perriand, 스위스-프랑스, 스위스, 프랑스/1928. 의자의 외부 프레임과 화려한 쿠션과 더불어 이 '안락 의자'는 호화롭게 설계된 국제 양식(International Style)의 원형이다. 강철봉의 구조적 가능성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르 꼬르뷔지에, 피에르 잔느레, 샤를로트 페리앙/1928. 이러한 가구그룹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 인간공학적으로 확고한 형태를 지닌 B306의자이다. 초기에는 흔들의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에리엘 사리넨 Eliel Saarinen, 핀란드-미국/1929. 저녁식사용 의자로 크랜북에 있는 사리넨의 집을 위해 디자인된 것으로 프랑스 아르데코의 영향을 보여준다. ㉫미스 반 데어 로에/1929.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1929년 국제전람회의 독일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형태가 풍요하면서 현대적인 외관을 갖고 있다. ㉬엘 리씨츠키 El Lissitzky, 러시아/1930. 리씨츠키는 모스크바 디자인 학교에서 가르쳤으며 구성주의의 공동창시자였고, 드 스타일의 회원이었다. 바우하우스 디자이너들과 다다 예술가들로부터의 영향을 그의 디자인에서 볼 수 있다.

1920년대의 의자디자인에 나타난 특징은 브로이어를 비롯하여 꼬르뷔지에, 그레이, 스타, 로에 등이 강철봉과 얇은 업홀스터리 가구들을 이용하여 새롭고 미니멀리즘적인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며 특히 꼬르뷔지에의 안락의자(1928년)는 국제 양식의 원형이 되었다. 1920년대의 합리주의는 일반적으로 그 시대와 일치할 수 있는 하나의 삶의 틀을 제시하였다. 산업문화의 시대에 표출되는 합리주의로 가구분야에서는 접기와 휘기의 작업들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얻어지는 철판과 철봉의 구조들에 관계되는 요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었다.

학생때부터 브로이어는 게리트 리트벨트의 스타일로 의자들을 디자인하였다. 몇년 후 그는 그때까지 실행된 모든 연구들을 버리고, 강철봉과 가죽을 사용하여 새로운 의자를 창조하게 되었다. 이 재료는 현대운동의 의미있는 상징이 되었다. 자전거의 핸들바의 형태를 연구한 후에 철봉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전해진다. 이 와실리 의자는 구조가 외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바우하우스 기풍을 설명해준다. 의자의 개방된 형태는 기능주의의 이론과 공간의 조화에 대한 바우하우스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부드러운 곡선의 조화와 여러 요소들이 결합된 방법들은 이 의자의 인터스트리얼 디자인을 완전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20세기의 고전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었다. 사리넨의 프랑스 아르데코 스타일과 리씨츠키의 구성주의 작품을 볼 수 있다.

3-4. 1931-1940년



①알바 알토 Alvar Aalto, 핀란드/1931-2. 이 의자는 파이프오양요소의 프로젝트와 관계가 되는 것으로, 요양소에서 합판 시트와 등받이를 두루마리로 하는 것과 같은 유연성이 크게 필요하였다. 따라서 알토는 몇점을 벗겨서 판재를 얇게 하였다.

②알바 알토/1932-3. 그의 디자인은 기계적인 수단에 대한 진정한 지식과 창의력있는 형태, 물리적 특성에 의해 구별되는 목재를 다루는데 유능하였다. 이 의자의 주요 특징은 처음으로 잘 디자인된 현대가구가 값싼 비용으로도 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단순하면서도 튼튼하고 우아하며 시대의 유행을 초월하였다. 그는 30년 이상 곡목을 이용한 가구를 연구하였으며 재료를 유기적으로 이용한 형태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였다.

③제럴드 서머 Gerald Summers, 영국/1934. 이 안락 의자는 열대 기후에서 사용되도록 디자인되었다. 전통적인 나무 가구를 제작할때 습도의 증가에 따라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의자는 한 덩어리의 합판을 구부려서 혁신적으로 제작되었다. 업홀스터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열대지방에서 일상적인 곤충침입과 부패가 덜 되도록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의자 측면의 '오려진' 다리들은 또한 고도로 혁신적인 합판을 사용한 것이다.

④케리트 리트벨트/1934. '지그재그'로 4개의 목재로 리드미컬하게 연속하여 Z형을 만들어 마치 하나의 소재를 구부린 듯한 불가사의한 형태의 재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⑤브루노 매슨 Bruno Mathsson, 스웨덴/1934. 매슨은 정밀한 해부학에 기초한 의자를 디자인하였다. 주로 성형합판으로 제작된 플라이트 의자로 수공예적인 외관과 재료의 아름다움 그리고 유기적 형태를 교묘히 조화시켜 합리적 기능을 추구하면서도 인간미가 풍부한 향토성에 뿌리를 둔 조형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⑥마르셀 브로이어/1932-34. 1930년대초에 브로이어는 시팅(seating)에 관한 디자인들에서 편평한 알루미늄으로 실험하였다. 철봉만거나 탄력이 있거나 강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매개물은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하였다. 대량시장을 위해 의도된 그의 편평한 금속 디자인들은 스위스의 상점

들에서 소매되었다. 뒤쪽의 오목한 다리들은 캔틸레버 원칙의 혼성물이며 구조적으로 필요하였다.

⑦가브리엘 뮤치 Gabriele Mucchi, 이탈리아/1935. 반 파시스트 그룹인 'Corrent'에서 활동한 뮤치는 디자인과 건축분야에서 합리주의 운동의 일원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합리주의는 종종 이탈리아 파시스트 운동과 동일시되었다.

⑧지유세프 테라그니 Giuseppe Terragni, 이탈리아/1936. 이 의자들은 코모에 있는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의 본부인 테라그니의 빌딩에서 사용되었다. 합리론자들은 1930년대 초에 파시스트들에 의해 선호된 그와 같은 것을 디자인한다.

⑨마르셀 브로이어/1935-36. 1933년 런던에서 전시하였던 알토의 디자인이 유행한 것을 반영하여, 브로이어의 보다 초기 금속 디자인들을 모두 목재로 전환하였다.

⑩알바 알토/1938-1939. 알토의 모델 No.406 곡목의자로서 덜 실용적이지만 실내용도로 적합하다.

⑪한스 코레이 Hans Coray, 스위스/1939. 알루미늄으로 주조되고 열처리되어 제작된 매우 가벼우며 영구적이다. 뚫린 구멍은 무게를 감소시켰고, 실외에서 사용할 때 물이 배수되도록 하였다. 1939년 스위스 쥘리히 전람회에서 선보인 후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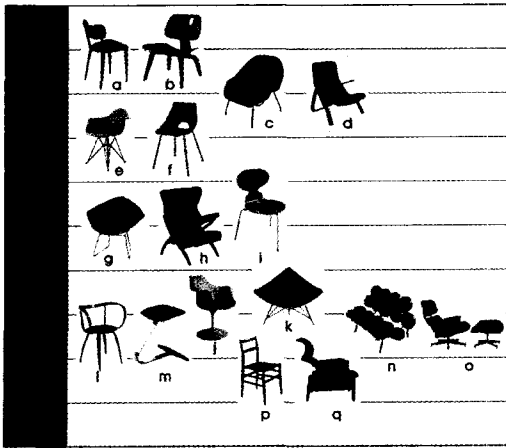
이 시기의 디자인 특징은 성형합판을 이용하여 가는 선의 미학을 만들어 나간 핀란드 태생의 알토로부터 시작된다. 1930년대 후반까지 그는 급격한 커브를 이용해 모난 것을 부드럽게 하고 가구의 재질을 차거운 재료인 금속에서 나무로 바꾸어 근대 가구의 폭을 넓혔다. 즉, 스칸디나비아의 풍부한 삼림 자원과 기능주의가 결합하여 조형에 있어서 나무의 특성을 살린 가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1930년대 초반 알토의 창작활동은 합리주의적인 격동에 어떤 제3요소를 가져다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실제로 그의 파라미오 의자는 브로이어의 의자클럽으로부터 착상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것에 매우 다른 선적인 역동성을 부여하며, 또한, 합판과 얇게 베어 붙인 나무의 사용은 그것에 쾌적한 유연성을 더해주고 있다.

3-5. 1941-1960년

①어네스트 레이스 Ernest Race, 영국/1945. 전쟁시기의 대량생산을 위해 디자인된 단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만든 유틸리티 퍼니처로서 항공기 폐기물을 이용한 알루미늄 의자이다. 항공기 기체에서 얻은 850여 톤의 알루미늄으로 1940년대 후반에 25만여개가 제작되어 판매되었다. 이 디자인은 1951년 밀라노 9회 트리엔날레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다.

②찰스 앤 레이 이임즈 Charles & Ray Eames, 미국/1946. 이임즈부부에 의해 만들어진 합판의자로 시트를 삼차원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기법을 보여주었다. 이임즈의 이정표인 프라이우드 의자들은 합판을 합성형으로 모울딩하는 값싸고 효율적인 방법의 개발을 위한 전쟁시기의 연구결과였다.

③이에로 사리넨 Eero Saarinen, 미국/1946. 울을 속에 넣고 관 모양의 강철로 만든, 모울드된 섬유유리 시트 셸로 합체되었다. 그 풍부한 비례와 유기형태와 함께 이 의자는 소비자를 그 속에서 웅크리고 앉게 하였다. 즉 부드러운 몰드 형태가 편안하게 신체를 수용해 준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으로 이것은 움(Womb)의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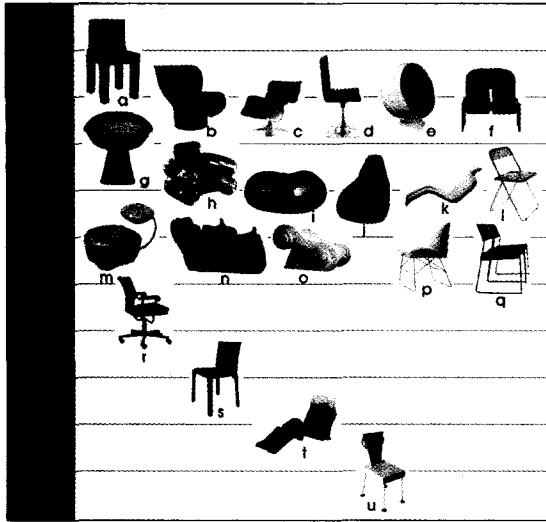
①이바로 사리넨/1948. 이 암체어는 늘(Knoll)사에 의해 소개된 사리넨의 최초 디자인이었다. 늘사에 따르면 '이것은 완벽하게 훌륭한 의자였지만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②찰스 앤 레이 이임즈/1948. 이임즈부부는 이 DAR(Dining Armchair Rod) 의자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FRP(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를 채용하여 대량생산을 향상시켰다. 용도와 기호에 의해 셸과 베이스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③레이 코메이 Ray Komai,미국/1950. 합성 모듈드된 합판 시트 셸에서 사용된 호두나무 베니어와 니켈로 연결된 버팀대는 이 의자에 유용성을 주는 사치스러운 느낌을 준다. ④해리 베르토이아 Harry Bertoria,이탈리아/1951. 그는 의자가 회전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인체의 역할을 고려하여 의자에 금속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의 대표작이 된 이 다이아몬드 의자를 디자인하였다. 또한 베르토이아의 디자인들은 기능적인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형태와 공간속에서 연구되었다. 기구적인 생산이 시도되었지만, 이 의자들은 수공으로 생산하는 것이 보다 쉬웠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 디자인은 엠스의 장미나무 의자와 더불어 현대 가구 디자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다. 브로이어, 스타, 미스의 의자가 2차대전 전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의자는 1950년대와 60년대 동안 주택의 실내장식용으로 계속 소개되었다. ⑤프랑코 엘비니 Franco Albini,이탈리아/1952. 엘비니는 최초의 신타리주의 디자이너였다. 전통적인 왕체어를 절감하여 가공된 이 '피오렌자'의자는 라텍스 폼 업홀스터리를 사용하여 부피가 커진 스프링 장치의 필요를 제거하였다. ⑥아르네 야콥센 Arne Jacobsen,덴마크/1955. 초기의 모듈드된 합판의자중에서 가장 성공한 이 '개미(Ant)'의자만큼 특징이 강하고 시각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었다. 처음으로 대량생산된 덴마크 의자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여러색으로 칠하여 판매되고 있다. ⑦이바로 사리넨/1955-57. 페테스탈 가구로서 공간적 개방감을 추구하던 현대식 실내공간에 의자 밑의 공간은 불편하고 복잡함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여 이를 단정하게 정리해 주고자 의도된 것이었다. 페테스탈은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프라스틱 코팅된 파이버그라스 셸에 접속되어졌다. ⑧조지 넬슨 George Nelson,미국/1956. 시각적으로 가볍게 보이지만, 이 '코코넛' 의자는 사실 의자의 스틸 시트 셸 때문에 매우 무겁다.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의자의 형태는 깨진 코코

넛에서 영감을 받았다. ⑨조지 넬슨/1957. 넬슨의 목적은 두 손가락으로 들 수 있는 가벼운 의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목표를 이 '프리첼' 암체어에서 성취하였지만 생산은 1년을 넘기지 못하였다. ⑩아킬레 엔 피에르 지아코모 카스티리오니 A & P.G. Castiglioni,이탈리아/1955. 기존제품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것을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제작된 이 '메자드로' 의자는 1983년까지 생산될만큼 매우 혁신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⑪조지 넬슨/1956. 이 '머쉬멜로우' 소파의 형태는 여러개의 파트로 분리된다. 이러한 분리를 강조하는 대담한 컬러계획과 소파의 기하학은 팝 디자인을 예고하였다. ⑫찰스 앤 레이 이임즈/1956. 1956년 제조 개시 이래, 이 라운지 의자와 오토만은 고도의 기능과 디자인이 평가되어 세계 각지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1940년 현대미술관의 '가정용 가구에 있어서의 유기적 디자인'에서 전시되었던 프로토타입에 바탕을 둔 이임즈의 No67은 구조적으로 가장 복잡한 의자였으며 시장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쪽을 위한 그들의 최초 디자인이었다. 부드러운 가죽과 쿠션을 살리는 프라이우드의 느슨한 곡선은 이임즈의 가장 훌륭한 점이다. 자단나무와 가죽, 철제를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이후 지금까지 계속 생산되고 있다. 뛰어난 회전장치와 뒤로 젖힐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커버를 씌우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쿠션안에는 공기가 들은 거품식 고무 공기주머니와 깃털, 새털 등을 집어넣었다. ⑬지오 폰티 Gio Ponti,이탈리아/1957. 매우 가벼우며 전통적인 이탈리아 의자디자인에 근거하였다. 폰티는 영원한 고전주의적인 실내와 물건들을 창안하였으며 이 의자는 '완전한 의자'로서 묘사되어 왔다. 특히 등받이는 굽은 나무로 뼈대를 갖추고 있다. ⑭아킬레 엔 피에르 지아코모 카스티리오니/1959. 실험적이며 양식적 관습을 단념하고 있는 이 '산루카' 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주의적 골격내에서 디자인되었다. 유사하게도 panton의 스테킹 চে어보다 7년 앞선 앤더슨의 원형은 전통적인 형태를 무시하였고 대량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씨팅 시스템을 심사숙고 하고 있다.

신세대 미국 가구 디자이너였던 사리넨과 이임즈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유기적인 스타일'의 가구를 만든 것이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구양식의 중심지는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었으며 새로운 가구디자인과 제작기술이 개발되었다. 즉, 새로운 라미네이트, 새로운 샌딩기술, 라미네이트된 나무의 조합 등의 기술이 제공한 가능성들은 1940년대의 가구 디자이너들을 흥분시켰다. 한번에 양쪽에서 재료를 몰딩하는 방법을 고안함으로써 근대 가구 디자이너들은 부분을 조립하는 제작방법에서 한번에 전체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¹⁰⁾

이임즈와 사리넨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라운지 의자(1950), 움의자(1947-48), 파리버그라스 셸 의자(1949), 라운지 의자와 오토만(1956), 페테스탈 의자(1955-57)등과 같은 유기적 스타일의 의자를 만들었으며, 베르토이아는 용접된 강철 다이아몬드 격자무늬 의자를 제작하였다.

10) Peter Dormer, 강현주 조미아 옮김, Design since 1945, 시각과 언어, 145, (1995)



①마르코 자누소 앤 리처드 사퍼 Marco Zanuso & Richard Sapper, 이탈리아, 독일/1961-1964. 1960년대 중반 폴리에틸렌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었고, 그로 인하여 재료원가가 내려갔다. 자누소와 사퍼는 처음으로 열가소성수지의 가능성을 탐구하여 이 압축성형한 어린이용 스텝킹 체어를 디자인하였다. ②조 콜롬보 Joe Colombo, 이탈리아/1963-1965. '엘다' 의자로 독립적인 섬유유리 프레임을 이용하는 최초의 대형 팔걸이가 있는 의자이다. 소시지와 같은 7개의 쿠션, 회전하는 받침대와 풍부한 비례들은 매우 편안하다. ③쿠카프로 Yrjö Kukkapuro, 핀란드/1964-65. 이 '카우셀리' 의자가 디자인된 일화가 전해진다. 술이 몹시 취한 쿠카프로가 밤에 집으로 가던 중 눈더미에 쓰러진 얼마 후에 깨어보니 눈에 만들어진 신체의 자국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였다고 한다. ④로제 탈롱 Roger Tallon, 프랑스/1965. 탈롱에 의한 모듈 400시리즈의 17개 디자인에는 의자, 테이블과 스톨들이 포함된다. 그 각각의 디자인은 40*40cm의 바닥을 접하는 받침다리를 사용하였다. 재료를 감싸는 폼은 비싸지 않은 업홀스터리의 편안한 형태를 만들었다. ⑤이에로 아니오 Eero Aarnio, 핀란드/1966. "디자인은 끝없는 갱신, 재편성과 발전을 의미한다"는 아니오의 신념은 그의 디자인에서 분명해진다. 시각적으로 자극하는 그의 디자인들에 대한 새로운 형태들 속에서 1960년대의 정신을 구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덧없고 일회적인 팝문화의 풍조를 신봉하지 않았다. 그의 가구는 내구성있게 의도되었으며 질이 우수하였다. 볼(Ball) 의자로서 알루미늄 베이스와 파이버글라스 강화된 폴리에스터 틀로 만들어졌다. ⑥토비아 스카르파 A & Tobia Scarpa, 이탈리아/1973. 디자인은 정확한 활동 혹은 물건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실제적인 용어로서 디자인은 규칙이 없는 직업이다.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최종의 구체적인 결과; 즉 제품이다' 라고 스카르파는 말한다. 이 디자인은 그의 1934년 No765 의자의 영향을 받았다. ⑦워렌 플래트너 Warren Platner, 미국/1964-6.

11) Terence Conran, Terence Conran on design, The overlook press, 56, (1996)

코넬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한 그의 디자인 철학은 환경에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과거에서 복제된 것은 불성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코 복제를 하지 않았다. 놀(Knoll)사를 위해 강철사를 이용한 의자를 만든 것으로 이는 단순하고 흐르는 듯한 형태이며, 틀은 팜을 낸 금속니켈이나 검은 구리를 플라스틱 뼈대에 접합시켰고 그 위에 쿠션을 놓았다. 플래트너는 '디자이너로서, 나는 루이 15세와 같은 시대적 스타일에서 나타났던 유형의 디자인에서 장식적이고 부드럽고 우아함의 여지를 느꼈다. 그러나 이것은 응용장식이라기 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배경을 가질수 있다. 고전은 그것을 보는 모든 시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것이며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⑧조나단 데파스, 도널드 두르비노, 파올로 로마지 카라 스코라리 Gionatan De Pas, Donato D'Urbino, Paolo Lomazzi & Carla Scolari, 이탈리아/1967.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대량생산된 부풀릴수 있는 블로우 의자로서 가구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준 사례이다. 불면 그 형태가 생기고 바람을 빼면 없어지는 가구이다. ⑨이에로 아니오/1968. 이 파스틸(Pastille) 의자는 흔들의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대담한 유기적 형태와 아울러 이 의자는 합성재료를 사용한 여러 스칸디나비아 디자이너들의 섞음질한 접근의 좋은 예이다. 등받이, 좌면, 팔걸이의 구조적인 분리가 없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구로서, 실내 혹은 실외용으로 디자인된 이 의자는 1968년 AID상을 획득하였다. ⑩피에로 가티, 세자르 파올리니, 프랑코 테오도로 Piero Gatti, Cesare Paolini, Franco Teodero, 이탈리아/1969. 첫 번째것은 유연하게 팽창된 폴리스틸렌 구슬로 반 쪼م 채워진 가죽백이었다. 두 번째것은 투명한 팽창식의 프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 이 사코(sacco) 의자는 전위의 상징이며, 형식주의에 대한 급진적이고 재료상의 반박이었다. 이 용어는 폭넓은 의미로 여기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형식주의에 대한 거부는 관습에 대한 거부이며 보수적인 중산층의 도덕성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이들은 단지 맹렬한 유토피아적 제안에 의해서만이 성공적으로 도전될 수 있는 것이다. 앉는 것(seating)에 대한 표준적인 서구의 개념은 이 의자와 함께 모든 의미를 잃었으며, 사용자가 응크리던지 드러눕던지 자루속에 가라앉던지 간에 따라서 그 형태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개념은 새로운 의미를 취하였다. 즉 사람의 체형과 앉는 자세에 따라 형태가 이루어지는 특이한 가구로 이전까지의 가구의 개념을 변화시킨 가구이다. 사코 의자는 매우 성공하여 당시의 최신경향으로 따르도록 느껴졌으며, 중산층뿐만 아니라 젊은 인텔리들이 선호하였다. ⑪올리버 무르그 Olivier Mourgue, 프랑스/1969. 여러개를 겹쳐 쌓을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닮은 형태로 무르그는 여행할 때 이 '특정있는' 시트를 갖고 다녔다. ⑫지안카를로 피레티 Giancarlo Piretti, 이탈리아/1969. 알루미늄과 프라스틱으로 만든 접을수 있는 이 프리아(Plia) 의자는 나무로된 전통적인 접이식 의자에 대해 현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재개발되었다. 접었을 때 중앙 축을 포함하여 두께가 1인치이다. 이 의자는 1973년 여러 가지의 상을 획득하였다. ⑬아끼레 카스티리오니 Achille Castiglioni/1970. 카스티리오니의 작품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

지 기능에 영감을 받은 실험적인 형태들로 요약된다. 이것은 최초로 대량생산된 무릎꿇는 스텐로서 좀 더 건강한 자세에 대한 갈망과 인간공학적 고려에서 파생되었다. ④조나단 데 파스, 도널드 두르비노, 파올로 로마치/1970. 야구 전설 '조 디 마지오'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 거대한 글로브는 지나치게 크게 해석된 조각품에서 영감을 얻었다. 형태는 고가의 글로브 가죽으로 석위된 재생산된 바우하우스 가구의 확산에 대한 아이로니컬한 코멘트로 보여진다. ⑤스튜디오 65,이탈리아/1971. 로버트 벤츨리, 한스 홀레인과 같은 포스트모던 고전주의자의 작업을 예고하고 있는 이 의자는 사용한 재료가 몹시 불성실해 보인다. 디자인이 매우 단단해보이지만 실제로 모올드된 폴리우레탄 폼은 놀랍게도 부드럽다. ⑥엔조 마리 Enzo Mari,이탈리아/1971.간단히 용접된 프레임과 하나로 된 이동할 수 있는 시트 쿠션으로 만들어진 '소프 소프'의자이다. 로우 테크, 저렴한 생산 방법으로 나타나는 1970년대의 경향을 예고하고 있다. ⑦로드니 킨스먼 Rodney Kinsman,영국/1971. 이 스테킹 체어는 1970년대 하이테크 스타일의 전형이다. 이 의자는 대규모 생산에 적합한 매우 합리적인 디자인이며, 실내 설의용으로 고안되었다. ⑧파올로 디가넬로 앤 길베르토 코레티 Paolo Deganello & Gilberto Coretti,이탈리아/1973. 두사람은 아키쥬어소시티(Archizoom Associati)의 창립회원으로 이 혁신적인 디자인 그룹의 이름을 사무용 의자 시리즈에 붙였다. 이 아키쥬 우노(Archizoom Uno)의자는 작업장에서의 진화적인 미학을 소개하였다. ⑨마리오 벨리니 Mario Bellini,이탈리아/1977. 이 의자의 가죽 업홀스터리는 골격만을 갖춘 스틸 프레임위에 직접 지퍼로 잠그며 지지재로 기능한다. 고품질의 안장 바느질은 뛰어난 가죽 작업을 생산하는 이탈리아의 전통을 입증한다. ⑩토시유키 키다 Toshiyuki Kita,일본/1980. 등, 발, 귀 부분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이 의자는 인간의 동작에 자연스럽게 대응하여 굴신운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해학적이다. 귀가 달린 이 의자는 토 포리노(작은 쥐) 혹은 윙크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며, 프레임을 개발하는데 4년이 걸렸다. 등의 각도를 자유로이 바꿀수 있는등 여러 가지의 편안한 자세로 배열되도록 하였다. ⑪에토레 소트사스 Ettore Sottsass, 오스트리아/이탈리아/1980. 공업적으로 생산된 부품들로 구성된 이 식탁용의자는 디자인이 풍자적으로 의도되었다. 1950년대의 키치와 관련된 매개물인 프라스틱 라미네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뎀피스 디자인의 원형으로 보여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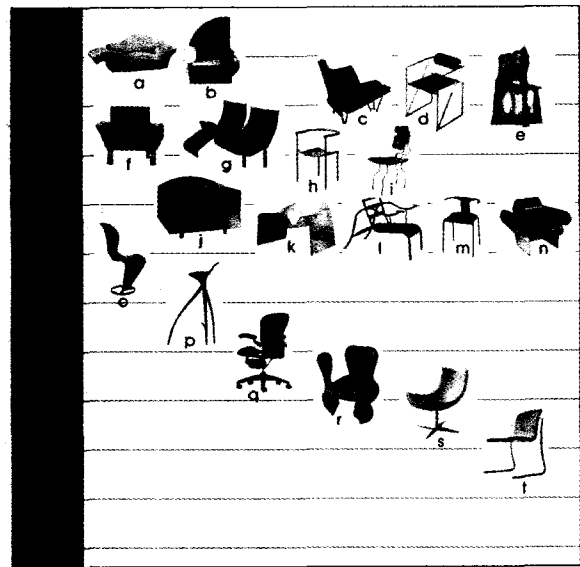
이 시기의 특징으로 몇몇 의자들은 1960년대의 우상이 되었다. 조나단 드파스, 도나토 두르비노, 파올로 로마치가 디자인한 부풀릴 수 있는 블로우 의자(1967)와 죠(1970)의자, 피에르 가티, 세자르 파올라니, 프랑코 테오도로가 디자인한 사코(1969)의자, 피레티가 디자인한 플리아 의자, 자누소와 사피가 디자인한 폴리에틸렌 어린이 의자가 있다. 1960년대 동안에는 급진디자인 혹은 반디자인으로 알려진 역류가 부상하였으며, 이것은 전후 유럽에서 번성했던 자본주의와 소비주의의 영향과 디자인의 제후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문화적 충격을 야기하였으며, 산업에서 디자인의 역할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적어도 역사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역할에 대한 대응수단을 제

공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팝 아트, 원시주의로의 회귀, 자산경제의 3가지 경향이 젊은 디자이너들과 함께 했다. 소비사회에 싫증이 나서 새로운 형태를 살피고 있었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전에는 의자디자인에서 크게 사용되지 않았던 플라스틱이 1960년대 초부터 크게 대두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엔조 마리의 소프소프 의자는 로우 테크, 키스먼의 스테킹 체어는 하이테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60, 70년대에는 사무실 환경이라는 디자인 개념이 크게 발전되었고, 디가넬로와 코레티의 아키쥬 우노(1973) 의자와 허먼 밀러사의 에르곤의자(1970-76)등이 사무용으로 디자인되었다.

3-7. 1981-2000년



①한스 홀레인 Hans Hollein,오스트리아/1981. 비엔나 출신의 건축가로 홀레인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 인물들중의 한명이다. 그의 대담한 '아르 데코가 팝과 만난다.'는 가구 디자인들은 그 양식의 쾌활한 풍요를 표현한다. ②피터 시어 Peter Shire,이탈리아/1982. 이전의 장식 스타일들로부터 장식계획을 모방하므로, 뎀피스는 성공적으로 반디자인을 보급시켰고, 그로부터 가구산업에서 대체적인 호평을 받았다. 뎀피스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시각디자인 언어를 확립하고자 장식을 사용하였다. ③파올로 디가넬로 Paolo Deganello,이탈리아/1982. 토르소 시리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 부분들의 호환성을 통하여 고객의 참여를 증진한다. 이 독특한 비대칭적 형태와 색상 옵션은 1950년대의 디자인에 영향을 받았다. ④마리오 보타 Mario Botta,스위스/1982. 스타일상으로는 1970년대의 하이테크 이미지를 강하게 주는 것으로 기계미학의 또 다른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뎀피스와 같은 반 디자인 운동의 과도한 장식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긴, 이러한 가구유형은 합리주의적 미학을 표현하고자 시도하였다. ⑤가에타노 페세 Gaetano Pesce,이탈리아/미국/1983. 이 의자는 폴리우레탄 수지의 구조적인 특성을 탐색하였던 뉴

속의 플렉스 대학에서 개발했던 9개 시리즈중의 하나이다. 많은 그의 디자인들과 같이 이 의자는 예술과 산업생산사이의 애매 모호한 관계에 집중된다. ① 에트레 소트사스/1982-3. 웨스트 사이드 콜렉션으로 철제틀에 폴리우레탄 폼이 입혀졌으며 하나의 가구 몸체가 다양한 색상으로 된 직물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기 달리 외장됨으로서 구성요소를 강조하였으며 다양한 색상이 절충적으로 사용되었다. ② 비코 마지스트러티 Vico Magistretti, 이탈리아/1983. 여러 가지 변형물로 이용 가능한 이 '베란다' 의자의 조절 가능한 프레임은 종아리를 대는 부분을 시트 밑에서 펴고 접을 수 있는 유머러스한 가구이며, 머리 받침대를 필요하다면 낮게 접을 수 있다. ③ 필립 스타크 Philippe Starck, 프랑스/1984. 이 '폰 포겔상' 의자는 이탈리아 회사인 트리야테 사를 위한 것으로 금속가구를 가정용 가구로 일반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④ 대니 레인 Danny Lane, 미국-영국/1984. 에투르스칸(Etruscan) 의자로서 강철틀과 광택있는 들쭉날쭉한 테두리로서 게 형태를 닮은 유리 시트와 등받이는 산업적 통일성과 대조된다. ⑤ 론 아라드 Ron Arad, 이스라엘-영국/1986. 구조적인 정직함과 이야기식의 내용을 지니고 있는 아라드의 이 특징있는 의자는 선과 무브먼트에 대한 그의 관심을 강력하게 전달한다. ⑥ 시로 구라마타 Shiro Kuramata, 일본/1986. 금속으로 시각현상을 일으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격자효과를 종종 사용하였다. 서양의 비평가들에게 구라마타는 디자인만이 아니라 유럽의 실험적인 작품들에서는 잊혀진 공예의 중요한 성질인 장인기질을 보여줌으로서 의자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다시 활성화시켰다고 평가되었다. ⑦ 시니 보에리 안 토무 카타나야기 Cini Boeri & Tomu Katayanagi, 이탈리아, 일본/1987. 이 유령(Ghost) 의자는 독특하게도 일체형의 12mm 두께의 모놀드된 유리로 만들어졌다. 완전하게 투명한 이 디자인은 보이지 않는 형태에 대한 브로이어의 비전을 거의 실현한 것이다. ⑧ 제스퍼 모리슨 Jasper Morrison, 영국/1987. 이 생각하는 사람의 의자(Thinking man's Chair)는 실내의 점용으로 디자인되었다. 강관과 평편한 스틸을 용접하여 제작된 것으로 팔걸이에 있는 동그란 디스크는 컵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⑨ 톰 디슨 Tom Dixon, 영국/1988. 프라스틱으로 만들어진 S 의자로 사람의 형상을 연상케 한다. ⑩ 알베르토 메다 Alberto Meda, 이탈리아/1987. 탄소섬유가 첨가되어 에폭시 수지 표면을 강화시킨 이 의자는 가벼울 뿐만 아니라 매우 단단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의자의 무게가 단지 1kg이다. ⑪ 필립 스타크/1990. 이 W.W.스틀은 1990년대 스타크의 작품에 흐르는 '소프트 디자인(Soft Design)'의 영향을 입증하고 있다. 그의 생체 묘사적인 형태들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촉각적 상호작용을 요하는 시각적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다. 이 스틸은 땅위로 올라온 짝이 작은 등받이로, 밑으로 파내려간 3개의 뿌리가 다리를 형성하는 짝트는 뿌리줄기를 닮고 있다. ⑫ 도널드 채드윅 앤 윌리엄 스템프 Donald Chadwick & William Stumpf, 미국/1992. 이 '에어론' 의자는 인간공학적, 기능적, 인체공학적, 환경적인 고려를 혁신적으로 성취하였으며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착석으로 대표된다. 이것은 사무용 의자로 허먼 밀러사에 의해 개발된 에르곤(1970-76)과 에코(1984) 의자의 후속 모델로서 오늘날 가장 혁신적인 사무용 의자라고 할 수 있다. 재활용

된 알루미늄, 섬유유리 강화 폴리스틸렌 프레임과 폴리에스터 망사 받침과 등받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디자인의 내구성은 '가장 중요한 것은 껍이다'라는 스템프의 신조와 관련될 수 있다. ⑬ 메리 리틀 Mary Little, 영국/1994. 이 '코트 오브 암스(Coat of Arms)' 의자는 중세의 모자와 의류디자인에 대한 연구로부터의 형태에 근거한 것으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의자로 제작된다. ⑭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며 그녀는 예술가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녀의 의자는 주로 부유한 수집가들이 가져간다. ⑮ 크리스토프 필렐 Christophe Pillet, 프랑스/1995. 필렐은 전후 유기적 합리주의의 영감을 기대한 신세대 소프트디자인 너들의 중의 한명이다. 그의 아름답고 깊은 인간적인 디자인은 온화한 형태, 미묘한 색채, 매력적 리듬을 갖고 있다. 이 의자는 두터운 비닐덮개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⑯ 로스 러브글로브 Ross Lovegrove, 영국/1997. 보다 나은 성취, 더 많은 효율과 환경적으로 견고한 디자인들이 창조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어떤 현대적인 방법론의 적용을 통한 것이라고 러브글로브는 믿고 있다.

그는 그의 아름답고 조화있으며 역사적으로 파생된 생활도구들을 통하여 '제품의 도덕성'에 대한 윤리를 영속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활을 개선하고 인간의 마음과 접촉하고자 의도하였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소트사스, 시어, 멘디니 등은 가구를 통하여 적대감과 풍자, 문화적 우월주의 등을 표현하려 시도하였다. 밀라노의 아방가르드 가구의 중심은 1981년 밀라노에서 설립된 소트사스 중심의 디자인 스튜디오 맴피스였다. 맴피스는 성공적으로 반디자인을 보급시켰고 맴피스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시각디자인 언어를 확립하고자 장식을 사용하였다. 부분적으로 마리오 보타의 세컨다(Seconda) 의자는 맴피스와 같은 반디자인 운동의 과도한 장식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긴 합리주의적 미학을 표현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스템프가 디자인하여 허먼 밀러사에 의해 1992년에 개발된 에어론 의자는 인간공학적, 기능적, 인체공학적, 환경적 고려를 혁신적으로 성취하였으며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사무용 의자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1980년대의 가장 유명한 가구 디자이너로 필립 스타크가 있다. 그가 즐겨 사용한 재료는 금속으로 '폰 포겔상' 의자를 들 수 있으며, 'Form Follow Starck'이란 표현이 대두될 만큼 자신만의 개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등 그의 작업은 건축은 물론 실내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을 포괄하고 있다.

페쇄와 메리 리틀의 의자디자인은 예술과 산업디자인 사이의 애매모호한 관계에 집중된다. 리틀은 스스로 예술가로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였다. 소프트 디자이너중의 한명인 필렐의 인간적 디자인과 러브글로브의 인간의 마음과 접촉하고자 의도한 디자인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90년대의 의자디자인은 시대적 양식이나 제작방법이나 재료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개인적 신념을 선언할 수 있는 이상적 매체로서의 의자디자인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시대별 구분에서 나타난 의자들의 디자인 경향

12) Liz Farrelly, The attraction of opposite, Blueprint, 107호, 34-36, (1994)

은 표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구분	의자디자인의 경향
빅토리아 시대	산업화된, 전통적인, 장식적인, 곡선적인, 비대칭적, 생동적인, 수공예적 미술공예, 곡선적 아르누보, 고전적 모더니즘 디자인,
1901-1920	장식없는, 단순한, 수직적인, 수평적인, 기하학적인, 직선적 아르누보, 실내장식용의, 분리파, 드스타일,
1921-1930	구조적인, 인간공학적인, 미니멀리즘적인, 아르데코 스타일, 구성주의, 기능주의, 국제 양식적인,
1931-1940	유연한, 유기적 형태, 선적인, 스칸디나비아의, 할리주의, 기능주의.
1941-1960	저렴한, 단순한, 대량생산적인, 유기적 스타일, 유틸리티적인, 실험리주의적인, 팝 디자인,
1961-1980	로우테크적인, 하이테크적인, 급진디자인, 반디자인, 팝아트, 유기적 스타일, 뎀피스, 사무실 환경
1981-2000	인간적인, 환경적인, 기능적인, 개성적인, 예술적인, 인체공학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소프트 디자인,

표1) 의자디자인의 시대별 경향

이것은 일반적으로 디자인 역사에서 나타나는 주요 사조들과 매우 관계가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자 디자인은 시대가 발전되며 나타나는 새로운 재료들의 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등나무를 사용한 곡목의자로부터 판재와 성형합판을 가공한 나무의자들, 철판, 강철봉, 알루미늄등의 금속을 사용한 의자로의 발전, FRP,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터, 폴리아우레탄과 같은 플라스틱 및 유리, 가죽등과 같은 특수 재료들에 대한 선택은 의자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연결들과 디자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고찰에서 나타나듯이 디자이너들의 국적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영국이 주도하였으나 40년대에는 미국이, 60년대 이후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디자이너들이 의자디자인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 디자이너들의 국제적 출현도 나타나고 있음을 볼수 있다.

4. 결론

지난 150여년 동안에 걸쳐, 의자의 발전은 건축과 기술에 있어서의 개발과 필적해왔으며, 디자인의 역사를 요약하는 것으로 보일수 있을 정도로 사회의 변화하는 필요와 관심들이 반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의자의 범위, 스타일, 재료, 결합방법, 테크닉과 미학은 무수한 선택을 의미한다. 지난 세기의 다양한 스타일상의 경향들에 주목해 본다면, 우리는 그 경향들이 기하학화를 지향하는 합리주의적 흐름과 자연의 형태들에 민감한 아르누보 사이로 양분하여 단순화시키거나 혹은 유기적 형태와 기하학적 형태로의 양분이 가능하다 하겠다.

어떤 주어진 유형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많은 의자들이 디자인과정에 상당한 충격을 미쳐왔다. 예를 들면, 토네트의 1859년 No.14의자, 라이트의 1904년 등이 높은

의자, 리트벨트의 1917년 적/청의자, 브로이어의 1925년 와실리 의자, 알토의 1932년 파이미오 의자, 이임즈의 1948년 DAR 의자, 피에로 가티의 1969년 사코 의자, 필립 스타크의 1984년 폰 포겔상 의자, 스티프의 1992년 에어론 의자, 리틀의 1994년 코트 오브 암(Coat of Arms)의자 등 의자디자인에서 자신의 이론을 표현할 기회를 잡았던 디자이너들의 리스트는 끝이 없어 보인다. 의자의 발전과정은 어떤 무엇보다도 디자인의 이론을 발전시켜 오고, 기술적인 프로세스와 재료들의 적용에 있어 일련의 중요한 발전을 가져온 연구들로 관모양의 스틸 파이프로부터 사출성형된 열경화성수지에 이르기까지,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발전은 의자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대안적 해결안에 다양성을 주어 왔다. 주로 건축가였던 이들 디자이너들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결합방법을 개발하고 만들기 위해 그들의 능력을 통해 밀접하게 의자디자인과 관련되었다. 또한 매킨토쉬, 라이트, 알토 등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인테리어와 빌딩을 위한 예술적 계획속에 의자디자인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의자의 제조업자들이 장인의 영역에서 인터스트리얼 프로세스의 영역으로 이동됨에 따라, 디자이너들은 공학적 지식을 배경으로 현대적 제조 기술의 제한요소 내에서 혁신적인 의자 디자인들을 개척하였다. 또한 기능과 구조의 문제를 넘어서, 의자의 기본적인 가치는 과거든 현재든 의자의 특성, 아이디어와 가치에 대한 전달에 있다. 의자에 대한 설득력은 그 수사학상의 명확성과 밀접한 관계로 보인다.

의자는 디자이너들이 시각적으로 말하고 개인적 신념을 선언할 수 있는 이상적인 매체가 되어왔다. 의자디자인은 비현실 디자인과 실용적 디자인사이에서 계속 고민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디자이너들이 추구하는 유일한 길로 보인다.

우리들의 국제성있는 의자디자인의 출현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 Jean-Claude & Ariane Archambault, The Macmillan Visual Dictionary, Macmillan, 220-223, 1995
- Charlotte & Peter Fiell, 1000 chairs, Taschen, 44, (1997)
- Thomas Hauffe, Design, Barron's, 36-37, (1996)
- Terence Conran, Terence Conran on design, The overlook press, 56, (1996)
- Noritsugu Oda, Danish Chairs, Korinsha Press, 1996.9
- Jocelyn de Noblet, Industrial Design Reflection of a Century, Flammarion/APCI, 1993.
- Daizaburo Okita지음, 박대순옮김, 산업디자인-프로덕트 디자인 연구, 도서출판국경, 77, (1995)
- Peter Dormer, 강현주 조미아 옮김, Design since 1945, 시각과 언어, 1995.10
- Raymond Guidot, 김호영 역, 현대 디자인의 역사 1940-1990, 도서출판 아루스, 1995. 2
- 정복상 김상권 지음, 가구 디자인, 미진사, 1993.1
- 산업디자인 150년, 정시화, 미진사, 84, (1991)
- 이연숙, 실내디자인 양식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1